

11/1/15

설교 제목: 하나님의 공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나훔 1:1-15

- (나 1:1) 니스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 (나 1:2) 여호와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 (나 1:3) 여호와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절관주** 욥 10:14, 시 104:3, 사 19:1
- (나 1:4)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절관주** 시 106:9, 사 50:2, 출 19:18
- (나 1:5)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절관주** 삼하 22:8, 벧후 3:10
- (나 1:6)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절관주** 왕상 19:11
- (나 1:7)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 (나 1:8)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절관주** 암 8:8, 사 28:2
- (나 1:9)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 (나 1:10)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 (나 1:11)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 (나 1: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절관주** 사 54:7, 사 54:8

- (나 1:13)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절관주** 사 9:4
- (나 1:14)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 (나 1:15)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성경에 이런 책이 있었던가?

생소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3 장으로 구성된 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소 선지서 12 권 중 7 번째 책입니다.

참고로 성경 66 권 중에는 17 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17 권의 선지서는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5 권의 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와 12 권의 소 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나뉩니다.

나훔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1: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 나훔은 당연히 선지자 이름이겠쥬.

나훔은 느헤미아의 축약형으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엘고스 사람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Message 를 글로 쓴 것입니다.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니느웨 네가  
악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여 멸망케 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에 대해서 니느웨가 멸망함으로 너 유다는 그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취 여부입니다.

제 아무리 멋지고 그럴싸한 예언일지라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예언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지요.

그런데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이 믿겨지지 않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은 선포된지 불과 반세기도 못되어 애처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하면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곳이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온 성읍을 돌며 40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때 왕을 비롯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무론대소하고 가축까지 모두 굶은 배움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곳입니다.

(욘 3: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곳을 향해 내가 아낀다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욘 4: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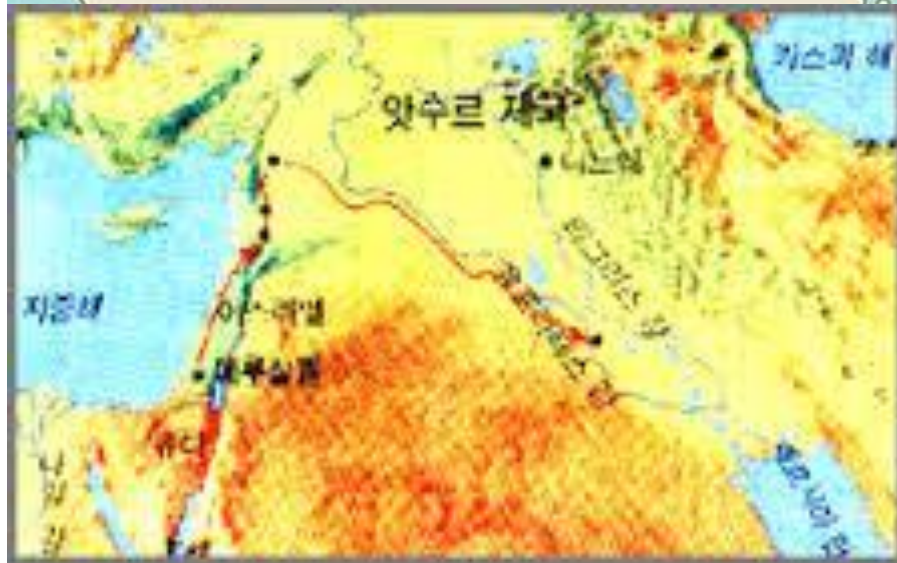
그런데 100 년이 지난 후, 선지자 나훔은 또 다시 이곳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들은 불과 3-4 세대 지났을 뿐인데도 100 년전의 신앙 부흥 운동은 씻은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불법과 우상 숭배와 교만함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로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입니다.



앗수르는 당시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BC 722 년 앗수르의 사르곤 2 세 왕은 북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10 지파를 흩어 버렸습니다.

BC 701년에는 앗수르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남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 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지기는 했으나 앗수르는 언제나 남 유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후 앗수르는 더 강성하여져서 아슈르바나팔 왕(BC669-633)에 이르러서는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도인 니스웨로 말할 것 같으면 난공불락, 아무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26m 나 되었고 그 두께는 세 대의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갑니다.

더하여 성벽 둘레에는 너비 24m, 깊이 15m 의 해지가 있었고 높이가 약 52m 되는 거대한 탑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적에게 포위되었더라도 20 년은 견딜만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선지자 나훔의 니스웨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 1:8)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난공불락이던 니스웨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제방이 터지고 니스웨 성벽 일부가 파괴되자 바벨론 군대가 허물어진 성벽으로 들어와 성읍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 태움으로 BC 612 년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